



델라웨어 뉴스레터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Delaware Korean U. M. Church



2011년 표어: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자(행 1: 13)

*담임목사 칼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계절, 5월



담임목사 송종남

맑고 푸르고 빛나는 계절, 5월입니다.
5월은 일 년 열두 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해서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달입니다. 겨우내 죽은 듯이 잠을 자던 나무에서 새순이 솟아오르고 그 새순들이 연초록으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달이 바로 이 5월이고, 날마다 떠오르는 해님이지만 이 5월의 해님은 더 밝고 눈이 부신 것 같습니다.

아름답다, 맑다, 이쁘다, 빛이 난다, 눈부시다, 환상적이다, 황홀하다... 그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계절이 이 5월입니다.

날마다 교회를 오고가면서 마주치는 꽃들은 연초록 풀을 배경으로 보라색,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빨강색...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색깔의 조화를 이루며 피어났는지, 아무 곳이나 꼭 잘라내서 벽에 걸어놓아도 그것 자체가 명품이고 걸작품이 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저는 늘 이맘때만 되면 피천득 시인의 '5월'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 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리고 오월은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이 오월엔 연한 살결같이 부드러다.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 하리, 나는 지금 오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내날이 변져가고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유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 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이----- 지금 가고 있다.



5월은 글을 잘 쓰지 못해도,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누구나 한번쯤 작가가 되고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계절입니다. '좋다, 참 좋다'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달입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을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이 이 5월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부모님, 선생님,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달이 바로 이 5월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가정만큼 소중한 곳은 없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곳이고 한 인간에게 가정만큼 든든한 울타리는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 안에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삶의 모범을 보이며, 믿음을 전수하고,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것이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면서 드리는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한 이 5월에는 우리를 가르쳐주신 많은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날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잘 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많은 스승님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저 사는데 바빠서 선생님에 대한 기억조차하지 못하고 지냈다면, 5월을 보내면서 한분이라도 스승님을 찾아서 전화라도 드리고 감사카드라도 한 장 보내면 얼마나 생각합니다.

5월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들, 선생님... 이 모든 이름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준 이름들이며, 인생이 무엇으로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밝고 빛나고 푸르른 계절 5월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계절 5월을 보내면서 모두 모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생기의 이슬방울이”

안 의숙 권사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위한 선교권기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5월 1일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가까운 Delcastle Park에서 있었다.

송중남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중알중알 이야기꽃을 피우며 권기를 시작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기를 가지고 권자는 의미에서 작년보다 부활절 다음주일을 선교 권기의 날로 잡았는데 참 잘한 것 같다.

긴 겨울을 끝내고 나무들은 모두 연초록 옷을 갈아입었고, 우리들도 올해 처음으로 맞추어 입은 티셔츠가 연초록색 이어서 우리가 나무인지 나무가 우리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40일 특별새벽기도하며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축 늘어진 모습이 되기도 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므로 다시 생기를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나와서 걸으면서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붙여넣는 이슬이니 온 땅이 죽은 자를 다시 내 놓을 것입니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우리가 걷는 이 작은 발걸음이 바로 죽은 땅에 생기를 넣는 그런 발걸음이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에서 생기의 이슬이 똑똑 떨어지는 발걸음이라는 생각을 하니 저절로 발목에 힘이 솟아 올랐다. 비록 우리가 작은 정성을 보태지만 이 작은 물질이 모아져서 죽은 땅에 생명을 전하는 이슬방울로 내려지기 때문이다. 지구의 동쪽 어느 구석에서 흑암에 앉아있던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의 생기를 전하고자 하는 발걸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누리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번에 선교 권기에 참석한 인원은 꼬마들까지 모두 합해서 45명이었다. 그리고 이날 함께 걷지는 못했지만 기도로 또 물질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다. 복음에 빛 진자로서 그 빛을 갠기 위한 모든 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5월의 신록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두 바퀴를 돌았는데 공원이 워낙 넓어서 두 바퀴만 걸어도 3.5마일을 걸은 셈이었다. 이렇게 걸었으니 벌써 몇 파운드는 빠진 것 같다고 배까지 들이밀며 팔팔대고 웃는 집사님들의 웃음소리가 초록빛 하늘로 흩날리고 있었다.

초록색, 한 가지 색깔만 있으면 풍경이 심심할까봐 때마침 만발한 분홍색, 하얀색, 보라색 꽃들과, 걷는 동안 구름으로 햇살까지 가리워 주신 세심하신 우리 하나님, 선교부에서 준비한 환상적인 김밥과 주먹밥, 김치, 오렌지 케이크, 거기에도 우리가 걷는 행복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주는 전문 사진사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모두가 감동, 감동 그 자체였다.

선교권기는, 선교를 할 수 있으니 좋고, 건강해져서 좋고, 저녁까지 해결해주니 좋고, 공짜 티셔츠까지 받으니 좋고, 웃어서 좋고.... 한 가지를 행하므로 두 가지 이득을 얻는다는 1석 2조가 아니라, 한 가지를 하므로 다섯 개, 여섯 개 열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좋은 일이 생기는 1석 5조... 1석 10조, 1석 100조 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는 이 걸음걸음에서 생기의 이슬방울이 솟아나게 하소서’
이것이 2011년 선교권기를 하면서 드린 나의 간절한 기도요, 소원이었다.

■ 교회 행사



1. 사순절 새벽기도회 “목적이 이끄는 40일”

2011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9일(수)부터 4월 24일(토)까지 있었다. 올해는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묵상하였고 우리를 이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금 발견하며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영적 순례의 기간이었다.



2. 아동부주최 “예수 고난의 길 참여하기”

고난 주관을 맞아서 3월 23일(토)에 아동부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걸어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조금이나마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전기까지 나가는 악천후 속에서도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하였고,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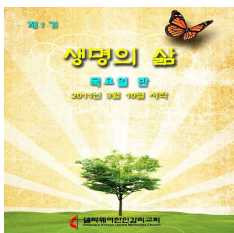
3.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을 맞아서 성가대가 메시아중의 몇 곡을 골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4.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위한 “선교권기”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 연합회의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선교 권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Delcastle Park에서 5월 1일(주일) 오후 4시에 있었다.



5. 생명의 삶 성경공부

성경공부 시리즈 제 1단계인 생명의 삶의 제1기가 3월 13일부터 되었고 주일반, 목요일반, 도버지역반 이렇게 클라스로 나누어서 실시되고 있다. 13주 동안 계속하는 성경공부이며 제 1기가 끝나면 2기가 시작된다.

6. 2011년 청소년부주최 Confirmation Class

청소년부에서 11, 12학년을 대상으로 3월19일(토)-5월 22일(토)까지 Confirmation Class가 진행되며 송목사님, 배목사님, 조전도사님, 김전도사님, 김운섭 집사님께서 성경공부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7. 여선교회주최 Q. T. 나눔방

우리교회 쿠티 나눔방이 새롭게 단장하였다. 여선교회 교육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매주 10-15명의 여선교 회원들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삶속에서 깨달은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매주 새로운 관중과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체험하고 있다. 여선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교회



8. 한 생명 초청 잔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활절을 맞아서 그 생명을 누구에게나 전하기 위해 한 생명 초청 잔치를 하였다.

가정을 중보하는 2011년 새벽기도

올해 매일 새벽기도시간에는 한 가정씩 정하고 그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순서 > 5월 (화):윤무관/선행 (수):윤석민/은경 (목):윤원동/성희 (금):윤정원/혜진 (토):Tortorella Rick/은남
(화):윤창욱/숙희 (수):이건수/세영 (목):이규태 (금):이기풍/선희 (토):이명수/정자
(화):이상열/해주 (수):이상훈 (목):이선제/효숙 (금):이석원/은경 (토):이승섭/안나
(화):이영자 (수):이영찬/연환 (목):이종현/혜옥 (금):이해집/정자 (토):임춘예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4

5, 6월 교회 행사

■ 어린이 주일 5월 1일(주일)	■ 아동부주최 세미나 “당신은 축복입니다” 6월 4일(토)
■ 선교부주최 아시아 전도부인을 위한 선교견기 5월 1일(주일)	■ 성가대 야유회, 청소년부 졸업파티 6월 5일(주일)
■ 어머니 주일 5월 8일(주일)	■ 속장, 인도자 모임 6월 10일(금)
■ 연합속회주최 찬송가 경연대회 5월 15일(주일)	■ 성령강림주일(성만찬) 6월 12일(주일)
■ 무숙자 점심 제공 봉사 5월 21일(토)	■ 삼위일체주일 6월 19일(주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717 Loveville Road Hockessin, DE 19707

Tel. 302.235.5735 Fax. 302.235.5736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집회안내	중 보 기 도	주 일	오 전 10:30-10:50
	1부 한어 예배	주 일	오 전 8:00
	영어 예배	주 일	오 전 9:45
	2부 한어 예배	주 일	오 전 11:00
	아동부 예배	주 일	오 전 11:00
	청소년 예배	주 일	오 전 11:00
	새벽 기도회	화~토	오 전 6:00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오 후 7:50
	생명의삶 성경공부	목, 주일	오 후 7시, 오 후 1시
	청년부 예배	금요일	오 후 6:30
	청소년부 성경공부	토요일	오 후 7:00
	여선교회 Q.T. 모임	금요일	오 전 10:00

TO.

contact@dkumc.org www.dkumc.org